Entertainment p/24

성탄스크린 사로잡은 '타워'

메트로 2012년 12월 27일 목요일 www.metroseoul.co.kr

Entertainment p/22

제아 솔로앨범 화려한 지원

금고털이에 현직 경찰관 가담

NEWS p/02

스마트폰 수리비용 '들쭉날쭉'

NEWS p/03

NEWS p/04

metro
메트로 2012년 12월 27일 목요일 제2___호 www.metroseoul.co.kr

'파티의 여왕'된 1만원 매니큐어

지갑 가벼워진 여심들 연말모임 액센트로 선호
"바르기만 해도 1000만원 명품 효과" 판매 불티

딩동! "이번 송년회 드레스 코드는 레드!"

며칠 전 연말 모임을 알리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직장인 전지희(27)씨는 고민 끝에 빨간색 매니큐어를 구입했다. 전씨는 "옷을 새로 사려니 돈이 아깝기도 해 대신 손톱을 빨갛게 칠해 어필하기로 했다"며 "1만원짜리 한 장으로 섹시하게 꾸밀 수 있는 데다 두었다 여러 번 바를 수 있어 더 마음에 든다"고 말한다.

화려할수록 주목받는 연말 모임에서 누구보다 돋보이고 싶은 여심이 요즘 매니큐어를 찾고 있다. 계속된 불황에 큰 돈 쓰기를 꺼리는 여성들이 적은 돈으로 톡톡 튀는 멋을 낼 수 있는 매니큐어로 대리만족을 얻는 중이다.

유통업계는 불황이면 저렴하게 꾸밀 수 있는 립스틱이 잘 팔린다는 '립스틱 효과'를 제친 '매니큐어 효과'를 실감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립스틱의 올해 매출 성장세가 더뎌져 지난해보다 12%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매니큐어는 200% 이상 급성장했다.

미국의 유명 매니큐어 브랜드 OPI의 경우 매출 규모는 3배 증가했다. 샤넬, 랑콤 같은 해외 화장품 브랜드가 선보인 홀리데이 한정판은 조기 품절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매니큐어가 불티나게 팔린 이유는 립스틱보다 저렴한 가격(1만~3만원)으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해 여성들이 기분 전환 삼아 손쉽게 구입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샤넬 매니큐어를 색깔별로 사모으는 직장인 홍지연(31)씨는 "수백만원짜리 가방은 사기 겁나지만 매니큐어는 단돈 3만원으로 명품을 가졌다는 만족감이 든다"고 말했다.

◆ 반짝이 레깅스·퍼 베스트로 포인트

북극 한파 같은 날씨만큼 경기가 얼어붙은 올 연말, 파티 모임에 갈 차림이 부담스럽다면 '매니큐어 효과'를 노리는 게 아이디어다.

패션업계 또한 돈을 최대한 아끼면서 드라마틱한 효과를 낼 수 있는 포인트 스타일링을 제안하고

씀씀한 돈 통의 힘—체크카드 1억장 돌파 경기 불황으로 돈을 계획해 합리적 소비를 할 수 있는 체크카드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처음으로 1억좌를 넘어선 가운데 26일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에서 한 직원이 체크카드를 출력하고 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높다는 점도 체크카드가 인기를 끄는데 한몫했다 <관련기사 12면> /연합뉴스

있다.

레스토랑 조명 아래서 반짝반짝 빛날 수 있는 뷰비 귀걸이나 스팽글 블라우스가 대표적이다. 패딩이 도드라지는 레깅스와 풍성한 퍼 베스트는 저렴하게 다소 튀어도 이미 갖고 있는 옷들과 겹쳐 입기 편한 아이템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제품들의 가격대는 10만원을 넘지 않는다.

여성복 브랜드 베니건의 이화창 홍보팀장은 "최근 파티 모임 룩션으로 고가의 모피보다 인조 퍼 베스트나 퍼 트리밍 장식을 덧댄 중저가 제품을 찾는 사람들이 늘었다"며 "장기화된 불황에 입을만한 멋내기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새해엔 나도 꼭 이들처럼 되리라" 억대연봉 샐러리맨 36만명

1억 연봉자가 30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 과세근로 대상 '이른바 유리지갑' 근로자 수가 1554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직장인 100명 가운데 2명은 억대 연봉자인 셈이다.

26일 국세청이 발간한 '2012년판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과세 대상 근로자 1554만 명 중 총 급여액 1억원 초과자는 36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7만9600명)에 비해 29.4% 증가한 수치다. 억대 연봉 근로자의 비중은 올해 2.3%를 기록해 처음으로 2% 벽을 넘었다.

추세를 보면 1억원이 넘는 고액 연봉자는 2008년 19만5000명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9만7000명으로 0.8%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2010년에는 전년 대비 42.3%나 급증하는 등 증가 속도가 더 빨라졌다.

억대 연봉을 받는 여성의 비율도 매년 증가 추세다. 2009년 16.4%(2만2200명)에서 2010년 16.6%(2만5693명)로, 지난해에는 16.9%(3만1498명)로 확대됐다.

자연스럽게 여성의 양도소득세 신고율(38.8%)도 늘었다. 2006년 이후 최고치였다.

이는 여성의 활발한 사회 진출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과세 대상자 중 남성은 667만1000명, 여성은 326만2000명으로 여성 비율이 32.8%를 차지했다. 여성 비율은 2007년 29.2%에서 4년 만에 3.6% 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연금저축 소득공제액도 5조원을 처음 돌파했다. 연금저축 소득공제액은 2009년 3조6555억원에서 2010년 4조1771억원으로 14.2%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5조4224억원으로 전년 대비 29.8% 늘었다. 인원(1699→1891→2177명)도 매년 10% 이상 확대됐다. 노후생활 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연금저축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해 국세청 세입은 180조원(2010년 166조원)이다. 세수가 가장 많은 세무서는 영등포(14조9000억원)로 2년째 전국 세수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남대문(11조6000억원), 3위는 울산(6조5000억원) 순이다.

/김지성기자 lazyhand@

아듀! 2012 ▶16·17 '총선·대선 정치의 해' 뜬 사람과 진 사람 ▶18 "지난 한해 정말 고생했어" 나를 위한 작은 셀프 기프트

공공기관 여직원들 인사상 불이익 걱정에…

성희롱 그냥 참는 93%

성희롱을 당한 공공기관 여직원 10명 가운데 9명은 피해 사실을 참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한국리서치와 중앙대학교에 의뢰해 공공기관 직원 7957명을 대상으로 '2012년 공공기관 성희롱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1년간 성희롱을 당했다고 응답한 일반 직원의 비율은 3.8%였고, 동료의 성희롱 피해를 보거나 들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4%였다. 특히 정규직(3%)보다는 비정규직(7.5%)에서, 남성(0.5%)보다는 여성(7.7%)의 성희롱 피해 응답 비율이 높았다.

성희롱 피해자에게 대처 방법을 묻자(복수응답) 응답자의 90.8%는 "참고 넘어간다"고 답했다. 특히 여성의 응답률은 92.9%로, 남성(66.7%)에 비해 성희롱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에 대해 '업무와 인사고과상 불이익 우려'가 29%로 가장 많았고, 문제 해결에 대한 의구심(27.5%), 소문·평판에 대한 두려움(17.4%)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공공기관 내 성희롱 관련 전담기구의 예산은 평균 62만9000원으로 예산이 전혀 없는 기관은 전체의 24.7%에 달했다.

/장윤희기자 unique@

금고털이 망봐준 경찰

강력팀 근무경력 바탕 '바닥에 물 뿌리는' 치밀수법까지 가르쳐줘

전남 여수 월하동 우체국 금고털이 사건 당시 현직 경찰관이 망을 봐준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경찰서는 9일 발생한 우체국 금고털이 사건을 수사하던 중 관할 삼일파출소 김모(44) 경사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긴급 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특수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박모(44)씨를 조사하던 중 "김 경사와 공모했다"는 진술을 받은 직후 김 경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수우체국 내부사진 찍어 전달

애초 박씨는 단독범행을 주장했으나 경찰이 사건 발생 당시 자전거를 타고 현장에 갔다가 귀가하는 김 경사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제시하자 공모 사실을 인정했다.

볼낯없는 경찰서장 26일 전남 여수경찰서 김재병 서장이 사건 브리핑에 앞서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사에 따르면 박씨는 범행 15일 전부터 김 경사와 공모했으며 김 경사는 방범 진단을 핑계로 우체국 금고의 위치와 벽면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박씨에게 보여준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는 범행 사흘 전 우체국 인근 화단에 범행 도구를 은닉해 뒀다.

◆범행후 훔친돈 절반 넘겨받아

박씨는 우체국 CCTV 2대에 흰색 래커칠을 하고 우체국과 맞닿은 식당 벽면과 금고 뒷면을 산소용접기로 절단하는 등 영화에 나올 듯한 수법으로 현금 5213만원을 꺼내 현장으로부터 300m 떨어진 곳에서 김 경사에게 돈 절반을 건넸다.

김 경사는 5~6년여간 강력팀 형사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은 채 범행 현장까지 각각 도보, 자전거로 접근해 현장에 물을 뿌려 족적이 남지 않게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동호기자 steven@metroseoul.co.kr

"나도 극장 가서 봤는데…"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둘러보는 MB

26일 열린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개관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참석자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박물관에는 개항기부터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의 정치·사회·경제·문화 분야를 살펴볼 수 있는 관련 유물 1500점을 전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내 이어 남편 육아휴직때 급여 더 지급 추진

정부가 현행 65세 이상인 고령자 기준…남성의 육아휴직을 증장기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의 가입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연금저축 등에 대한 세금 감면 대신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관계 합동 중장기전략위원회를 열고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특히 근로 능력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사람의 경우 열심히 근로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재설계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의 경우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개선을 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고쳐 고령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아휴직제도는 한 자녀에 대해 맞벌이 부부가 동시에 사용할 때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더 많은 휴직 급여를 주는 식으로 바꾸는 방안도 포함됐다. 성별과 무관하게 임금의 40%를 주는 현행 제도에서는 여성의 휴직이 남성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배동호기자

노정연씨 징역6월 구형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딸 정연(37)씨에게 검찰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정해진 외화 취급 기관을 거치지 않고 무신고 외환거래를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연씨는 2007년 9월 미국 뉴저지 아파트 한 채를 매수하면서 현금 13억원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유리기자 grass100@

"할아버지 여기를 누르세요" 손녀의 코치 26일 서울 건국대 새천년기념관에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주관으로 열린 '2012 스마트 시니어 페스티벌'에 참가한 55세 이상 어르신들이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검색·게임 퀴즈 등 활용 능력을 겨루고 있다. /뉴시스

기차역 내리면 180m내에 버스 승강장

기차에서 버스와 택시로 갈아타기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철도 이용객이 버스 택시 승용차 등 다른 교통수단으로 쉽게 환승할 수 있도록 철도역 입지 연계 교통시설 역사 내 이동 편의시설 등에 관한 철도설계기준을 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신설 철도역은 연계 교통시설 역 출입구 역 승강장까지 동선을 가급적 동일 선상에 위치시켜야 하며 환승 거리는 기존 역의 경우 최대 300m 신설 역은 최대 180m로 제한된다. 역 출입구에서 역 승강장까지 동선은 최단거리로 배치해 가급적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평면으로 이동하도록 규정했다. /김유림기자

전력 수요 사상 최고치 기록

예비전력 급락해 '관심' 발령

26일 서울 최저기온이 영하 14.5도를 기록하는 등 전국에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면서 최대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다시 썼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추운 날씨에 전기 난방이 급증하면서 이날 오전 10~11시에 최대전력수요가 평균 7587만7000㎾에 달했다. 앞서 18일 세운 최고 기록 7517만3000㎾를 돌파했다.

공급능력은 7997만2000㎾였고 예비전력은 398만9000㎾가 됐다. 순간 최대전력수요는 오전 11시1분 7658만4000㎾까지 치솟았다.

전력거래소는 오전 10시44분 순간 예비전력이 350만㎾ 미만으로 하락하자 전력수급 경보 '관심'(300만㎾ 이상 400만㎾ 미만)을 발령했다. 이번 겨울에 관심 경보가 내려진 것은 7·10·11·12·14일에 이어 여섯 번째다. /박성훈기자

이라뱃길 뚫는 쇄빙작업 올 겨울 최고의 한파가 찾아온 26일 인천시 서구 경인아라뱃길에서 1한급 다목적쇄빙선 '그린호'가 얼어붙은 아라뱃길에 항로를 확보하기 위해 쇄빙작업을 하고 있다.

스마트폰 고치러 갔더니 책정가격보다 부품값 더 받는 등 자기 맘대로

AS센터 '甲의 횡포'

스마트폰 수리비가 브랜드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부품 가격은 과도하게 비싸 소비자 불만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YMCA는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3개 스마트폰 제조사 9개 제품(각 사당 3개)의 부품 교체비용과 수리비용을 조사해 26일 발표했다. 대상 제품은 삼성 갤럭시SⅡ·SⅡHD·S HOPPIN LG 옵티머스2X·3D LTE, 팬택 베가레이서·No.5·LTE 등이다.

제조사가 제출한 평균 메인보드 가격은 LG가 28만4000원으로 가장 비쌌고 팬택 21만6467원 삼성 18만1000원이었다. 애프터서비스(AS)센터에서는 메인보드 가격이 가장 비싼 제품이 LG 옵티머스3D로 평균 31만6727원이었다. 가장 싼 제품은 삼성 갤럭시S HOPPIN으로 평균 14만5000원이었다.

옵티머스3D의 스마트폰 출고가격 대비 메인보드 가격은 36%에 달했다. 책정 가격은 삼성이 평균 10만9000원 LG 10만4500원 팬택 9만1300원이었다.

문제는 AS센터에서 제조사 책정 가격보다 더 비싸게 부품 값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삼성 갤럭시SⅡHD는 조사 대상 35개 AS센터 모두 제조사 책정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받았다. 갤럭시SⅡ도 34개 센터가 더 높은 가격을 제시했다. AS센터 제시 가격을 조사한 결과 책정 가격이 가장 비싼 제품은 삼성 갤럭시SⅡHD로 평균 13만5543원이었다. 가장 싼 제품은 팬택 베가No.5로 평균 6만8792원이었다.

배터리는 삼성과 팬택이 제품과 관계없이 각각 2만3000원 2만2000원에 판매했다. LG는 이보다 다소 저렴했다. 올해 상반기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스마트폰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1062건이었다.

장기간 수리 등 수리서비스 관련 불만이 49.5%로 가장 많았고 AS센터 직원에 대한 불만이 20.2%로 뒤를 이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혈액검사로 우울증 진단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병원의 보레 노르데스트고르 박사는 우울증이 우리 몸에 염증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염증표지 단백질인 CRP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24일(현지시간) 헬스데이뉴스가 보도했다.

노르데스트고르 박사가 성인 7만3000여 명의 의료기록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혈중 CRP 수치가 높은 사람의 경우 우울증이 나타날 위험이 2~3배 높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는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복용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혈중 CRP 수치가 3배 가량 높게 나타났으며 CRP수치가 높은 사람의 경우 우울증으로 입원할 가능성이 2배 이상 높았다"고 밝혔다. /박동희기자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237>

글·그림 박상철

"安 들어오게 민주당 정비"

박지원 "개방적 쇄신을"
내일 새 원내대표 선출

민주통합당의 대선 패배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

비주류 측의 친노 책임론이 제기되는 동시에 당내에서는 안철수 전 무소속 대통령 후보를 포용 가능한 개혁을 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재선의 민병두 의원은 26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중도층은 이념적 지향이 아니라 정당의 태도·문화·언어 등을 본다"며 대선 당시 친노 중심의 민주당 정치 문화 개선을 촉구했다.

반면 친노계 전해철 의원은 "일부를 한정해 책임 운운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맞지 않다"며 "민주당이 신당을 창당할 수 있는 자체 개혁과 혁신에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안철수 전 교수 등이 현재의 민주당 상태라면 오지 않으려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먼저 쇄신하고 더 큰 민주당으로 갈 수 있도록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민주당은 비상대책위원장을 겸할 새 원내대표를 28일 선출한다고 이날 공고했다. 원내대표 후보군에는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진 3선 박기춘·전병헌 의원을 비롯해 4선 김한길·신계륜 의원, 3선 박영선 의원 등이 자천타천 거론된다.

/김태리기자

참회하는 초선 의원들 민주통합당 초선의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선 패배에 대한 사죄와 참회의 의미로 1000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수위 '쌍두마차' 누굴까

박 당선인 '상징성 강한 위원장-실무형 부위원장' 오늘 발표할 듯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르면 2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선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인수위원장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당선인은 2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상공인단체연합회 임원단과 면담한 뒤 인수위 인선에 대해 "조만간, 빠르면 내일이라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인수위 인선) 다는 아니지만 부분 부분이라도 발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 총괄간사 등 핵심 직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인수위원장은 임기가 두 달인 한시직이나 박 당선인의 첫 인사인 만큼 '상징성'을 갖춘 인물이 발탁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박 당선인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한 인사는 "박 당선인의 국정 철학과 비전을 국민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인 인물이 인수위원장에 임명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박 당선인 비서실장으로 당내 정책통인 유일호 의원이 임명되면서 이런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후보군으로는 진보 성향의 박상증 전 참여연대 공동대표와 중도성향의 지식인 송호근 서울대 교수, 진념 전 경제부총리, 강봉균 전 재경부장관 등이 거명된다.

당내에서는 김종인 전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한광옥 전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등이 주목받고 있다.

상징적 인물이 인수위원장으로 인선될 경우 부위원장에는 전문성이 강조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박 당선인과의 신뢰 관계도 적극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부위원장에는 대선 중 박 당선인과 호흡을 맞췄던 진영 전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권영세 전 종합상황실장, 이주영 전 특보단장 등이 거론된다.

/김태리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중소기업 먼저 찾은 박 당선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출석자 웃으며 박수치고 있다. 박 당선인은 이 행사를 마친 후 전경련을 찾았다. /연합뉴스

It's All New Cafri

엄마는 1학년 나는 2학년
당신의 꿈! 한 학기 35만원으로

방송대생의 카피 톡톡 튀네

'혀을 좋은 스펙보다 우릴 풍요케 하는 지혜를'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지난 3월 신입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방송대 광고 카피 공모전' 중 우리 사회의 스펙 쌓기 풍토를 꼬집은 어인덕씨의 수상작이다.

매년 높은 대학교 등록금과 평생교육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가운데 학생들은 방송대만의 장점을 한껏 살린 짧은 문장에 깊은 의미를 담은 메시지를 탄생시켰다.

공모를 통해 가족과 함께 다니는 학생들의 사연을 담은 카피도 종종 볼 수 있다. 이영진씨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3대가 함께 다녀요'란 카피를 통해 3대가 함께 공부하는 사연을 전했다.

'엄마는 1학년 나는 2학년~'이라는 카피로 당선된 주기인씨도 가족과 함께 방송대에 다니는 사례다.

반값 등록금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저렴한 학비에 대한 자랑도 이어졌다. '당신의 꿈! 한 학기 35만원으로 시작해보세요!'(이영래)와 '착한 35만원 등록금! 착한 대학교'(이경래)는 짧은 문장 안에 '착한 학비'로 대학 진학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각인시켰다는 평이다.

또 '행복한 꿈을 엮어가는 행복한 등록금 35만원'(이현숙) '등록금 천만원 시대 우리는 70만원이면 충분해요'(박상호) '인생역전! 로또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등 등록금 관련한 카피가 많았다.

방송대의 장점인 효율성도 재학생의 칭찬 덕목에 올랐다. 김기만씨는 '모바일 수강으로 출·퇴근 시간이면 졸업해요'라는 카피를 작성했고 이근태씨는 '자투리 시간에 꿈을 담으세요~' 최윤희씨의 '직장인 대학생' 등 카피가 이런 방송대생들의 만족감을 대신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엄종홍 대외협력과장은 "선정된 우수작들을 활용해 실제로 일간지 게재광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학생 및 시민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대는 내년 1월 10일까지 22개 학과에서 16만 명의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문의: 1588-2853

/김유리기자

'스마일 마크' 확인하셨나요

어린이 식품 품질인증마크 고열량·저영양 제품 피해야

아이 간식을 고를 때 '스마일 마크'를 꼭 확인해야겠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표한 '겨울방학 어린이 건강 간식 선택 요령'에 따르면 가공식품 구입 시 영양표시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마크인 '스마일마크' 확인을 통해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피할 수 있다.

스마일마크는 안전 기준, 영양 기준,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지금까지 총 24개사 70개 제품이 등록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겨울방학이 되면 식생활이 불규칙해져 영양 불균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유제품과 과일 등 칼슘·무기질이 풍부한 영양 간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우리나라 어린이의 우유 섭취량은 권장 섭취량보다 60% 낮으므로 하루 2컵(400㎖)의 우유나 치즈 2장(40g), 떠먹는 요구르트 1컵(200g)을 먹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정보서비스 홈페이지(www.food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효정기자 unique@

훈훈 녹이는 연탄배달 26일 오전 경기도 동두천시 소요동에서 미2사단 장병들이 주민들에게 전달할 연탄을 나르고 있다. /연합뉴스

'보호자 없는 병상' 생기고 음식물 쓰레기도 '종량제'

서울 내년 달라지는 것

서울의료원에 '보호자 없는 병상'이 생기는 등 서울시가 계사년 새해부터 바뀌는 7개 분야 70건을 발표했다.

26일 서울시의 '2013년 달라지는 서울시정'에 따르면 내년 초 서울의료원의 간호 인력이 확충돼 총 623개 병상 중 4분의 1이 넘는 180실이 보호자 필요 없는 '환자안심병원'으로 운영된다. 의사가 간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환자는 '보호자 없는 병상'에서 무료로 간병 서비스를 받게 된다.

내년 1월부터는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해 잃어버려도 쉽게 찾을 수 있는 동물등록제가 시행된다. 동물등록을 하려면 구청장이 지정한 대행업체에 반려견과 함께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내 25개 자치구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많이 버릴수록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

◆ 교통 규제 더욱 강화

버스 운행 과속 사고 방지와 차량 수명 연장을 위해 내년부터 신규 출고되는 시내버스 속도 제한 기준이 110㎞에서 80㎞로 제한된다. 기존 출고 차량은 내년 3월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자전거 전용차로 교통법규 위반 단속도 강화된다. 주요 자전거 도로에 무인 단속기기 설치되며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 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년 3월 납기분부터는 하수도 요금이 올해보다 20% 인상되면서 3인 가족 가구 평균 680원을 추가부담하게 된다.

'2013년 달라지는 서울시정'은 책자 형태로 제작돼 구청과 동 주민센터, 서울도서관을 포함한 공공도서관 등에 비치되고 시 홈페이지(ebook.seoul.go.kr)를 통해서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정윤희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 1층
TEL (02)721-9800 FAX (02)730-1555
등록인·발행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락
광고국장·제작 김은일
서울광고문의 (02)721-9851~5
부산광고문의 0505-2100
독자센터 (02)721-9862
2002년 5월 3일 창간 서울 다 06513 등록번호 서울 아 00087

연금복권520 제78회

등위	당첨금	당첨번호	
1등	월 500만원 20년	5조	355593
		7조	181143
2등	1억원	1등의 전후 번호	
3등	1000만원	각조	423102
4등	100만원	각조	81761
5등	2만원	각조	681
6등	2000원	각조	43, 93
7등	1000원	각조	5, 8

장애인 행복 캠페인 "장애인복지정책으로 한걸음 더" — 성년후견제

지적장애를 가진 A씨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혼자 생활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직장을 얻지 못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비 지원을 받고 있었다. A씨의 장애 정도는 상대적으로 경증이어서 넉넉하지는 않지만 정부지원금과 지역사회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

하지만 A씨가 현재 동거녀인 B씨를 만나 함께 살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인지력이 부족하고 조울증을 앓고 있는 B씨는 A씨의 정부보조금이 나오면 3일이 지나지 않아 이를 다 써버리곤 했다. 주위에 친지가 없는 A씨는 통장 인출금액 등 소비 결정을 관리하는 한정후견인이 있다면 합리적인 지출 등 여러 가지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성년후견제 내년 7월 시행

위의 사례처럼 법률적·경제적으로 스스로를 보호하고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 치매 어르신들을 위해 내년 7월부터 성년후견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이나 치매 어르신들의 최소한의 권리보호를 위한 또 하나의 울타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제도는 기존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대신해 장애, 질병, 노령에서 비롯된 정신적 제약이 있는 경우 경제적 의사 결정뿐 아니라 본인의 신상 등과 관련된 사무를 도와줄 후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성년후견인은 법정후견인과 임의후견인으로 구분된다.

법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선정하며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으로 나뉜다. 본인이나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또는 지자체장이 후견심판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후견인은 치매나 정신질환의 경우와 같이 정신능력에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미래를 대비해 본인이 미리 후견인을 정하는 '후견 계약'을 맺어 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할 때 효력이 발생된다.

즉 성년후견인은 스스로 의사 결정이 불가능한 피후견인을 대신해 재산 관리, 질병 치료, 주거 이전 등의 의사 결정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 의사 결정을 지원할 때 피후견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장애인 권리 보호를 위한 또 하나의 '울타리' 역할

발달장애인·치매 어르신의 재산관리·병원치료 결정지원

신상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후견인이 대신 의사 결정을 한다. 또 위험이 있는 의료행위에 대한 결정 등 중요한 의사 결정은 후견인에 해야 할 때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결국 스스로 완전한 의사 결정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이나 치매어르신 등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능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어려움이 할 수 없는 영역에 한해서만 보조적인 의사 결정을 지원한다.

또 기존 제도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금치산·한정치산 선고 결과를 등재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별도의 등기제도를 마련해 제도이용에 대한 가족들의 심리적 부담을 다소 덜게 할 전망이다. 권리 보호 측면은 경제적 영역뿐 아니라 신상과 관련된 문제도 관여함으로써 재산이 적거나 없는 발달장애인도 성년후견제도를 권리 보장에 충분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민법에는 성년후견인의 선임에 따른 비용을 이용자의 재산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발달장애인에 대해 내년부터 성년후견제도 신청 비용과 후견인 활동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후견인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 중이어서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법은 관련 절차법과 법원의 세부 계획이 마련된 뒤 확정될 예정이다.

/배동호기자 steven@metroseoul.co.kr

26일 총리에 지명된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가 의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AP 뉴시스

일본 '우향우'

아베 내각 공식출범 망언제조기·독도 쇼 우익인사 대거 입각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가 26일 일본의 96대 총리로 공식 취임했다.

아베는 자민당 정권 당시인 2006년 9월 총리에 취임했다가 1년 만에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했다. 일본 헌정 사상 퇴진한 총리가 다시 총리직을 맡게 된 것은 64년 전 요시다 시게루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다.

극우 강경 노선을 천명한 아베 신임 총리는 새 내각의 핵심인 부총리 겸 재무·금융상에 후원자인 아소 다로(72) 전 총리, 관방장관에 심복인 스가 요시히데(64) 간사장 대행을 임명하는 등 조각을 마무리했다.

특히 아베 내각에는 '망언 제조기'와 '독도 저격수'로 불리는 우익 정치인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대표적인 인사는 문부과학상에 내정된 시모무라 하쿠분 의원이다. 그는 2007년 라디오 대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종군 간호부나 종군 기자는 있었지만 종군 위안부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방위상에 내정된 오노데라 이쓰노리 의원과 환경상 엽엽이 유력한 이마모토 이치타 의원은 간 나오토 총리의 한국강제병합 100년 사죄 담화에 극력 반대했던 의원들이다. 또 지난해 울릉도 방문 소동을 빚은 신도 요시타카(54) 전 경제산업정 부대신과 이나다 도모미(53) 전 자민당 부간사장도 각료로 기용됐다.

아베 정권은 집권 초반 주변국과 마찰이 불가피한 공약 이행은 뒤로 미루고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경제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7월 참의원(상원) 선거를 승리로 이끈 뒤 교육 개혁, 헌법 개정 등 우익 행보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선미기자 saoem@

today metro@global 지금 클릭! metroseoul.co.kr

'애교덩어리' 애완여우 인기 폭발

한류 덕에 먹고사는 '홍콩엑스포'

미 소방관 살해 '계획범죄'

미국인들에게 크리스마스 악몽을 안겨준 소방관 총기 살해 사건이 계획 범죄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CNN 방송에 따르면 전날 뉴욕주 웹스터 집에 불을 지른 뒤 출동한 소방관들에게 총을 쏴 2명을 숨지게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윌리엄 스펭글러(62)는 범행을 예고하는 쪽지를 남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이 이날 공개한 쪽지에는 '얼마나 많은 이웃집을 불태울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살인을 하려면 준비를 해야 한다'는 문구가 담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은 방화, 살인 동기를 더 정확하게 밝혀내려고 여전히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언론은 스펭글러가 몇 년 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재산을 소방서에 기부한 것에 불만을 품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1980년 저지른 조모 살해 사건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하희룡기자 lunlee@

2013년 이달의 '독립운동가' '6·25전쟁영웅'

대한민국의 영웅들!

대한민국의 독립과 호국을 위해, 당신들의 숭고한 희생은 대한민국 가슴속에 진정한 영웅으로 기억될것 입니다.

2013년 이 달의 '독립운동가'

2013년 이 달의 '6·25전쟁영웅'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의 희생으로 지킨 대한민국

KOSDAQ: 483.19 / 479.21 / 478.66 / 483.75 / 482.76 (12/18, 12/20, 12/21, 12/24, 12/26)

Nikkei (일본) 10230.36 (+150.24)
Hang Seng (홍콩) 22541.18 (+34.89)
Shanghai (중국) 2219.13 (+5.52)
Dow Jones (미국) 13139.08 (−51.76)

EXCHANGE RATE

달러	1072.50
엔(100)	1255.56
유로	1415.27
위안	172.04

전세 오름폭 큰 단지 매매가 하락폭 컸다

올해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격 상승폭이 클수록 매매가격은 더 많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3.3㎡당 매매가와 전세가가 높은 아파트일수록 전세가 상승폭도 컸다.

26일 부동산114가 2011년 말부터 2012년 11월까지 전세가격이 상승한 서울 아파트 48만5408세대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을 비교 분석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세가격이 15% 초과 상승한 아파트는 매매가 변동률이 평균 8.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격이 15% 초과해 상승한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2012년 11월 말 기준 3.3㎡당 2327만원으로 서울 평균 3.3㎡당 매매가격 1664만원에 비해 664만원 높게 형성됐다. /김지성기자

수도권 전철 Wi-Fi 구축완료

수도권 전철 전 구간에서 무선 인터넷을 쓸 수 있다.

코레일은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해 온 수도권 전동차 내 근거리 무선망(Wi-Fi) 구축이 완료돼 수도권 전 구간에서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전 구간 전동차 안에서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이용해 인터넷 접속이 무료로 가능해졌다. /박상훈기자

<근로자 대비>

자영업자 월70만원 덜 번다

평균 월소득 350만원…10%는 빈곤층 해당

불황에 믿을 수 있는 것은 큰 금 이라는 속설이 원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 가구의 평균 월소득은 약 350만원 수준으로 근로자 가구보다 70만원 정도 적은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26일 보건사회연구원의 '자영업자 가구 소득 및 가계 지출 빈곤 규모 추정과 교육·의료비 부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국 5인 미만 사업체 1만1012곳을 대상으로 '자영업자 복지 수요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 자영업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46만7000원(연평균 4162만원)이었다.

이는 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419만9000원)보다 70만원 이상 적을 뿐 아니라 전체 가구 평균(384만2000원)도 밑도는 수준이다. 더구나 자영업 가구의 연소득 분포는 평균(4162만원)보다 중위값(3600만원)이 낮아 대체로 평균 이하에 집중된 형태를 보였다.

자영업 가구의 2.3%는 소득과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 환산값)이 모두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절대빈곤층에 해당했고, 8.8%가 중위소득(전체 가구 소득 순위상 중간값)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대빈곤층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 자영업자의 가구 소득이 가장 많았고 자영업자 개인 학력이 높고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소득도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조사 대상 자영업 가구의 월평균 지출은 241만7000원으로 소득을 고려하면 한 달에 105만원 정도를 남겼다.

한편 저소득 자영업자들이 국민연금을 중요한 노후 대책으로는 인식하고 있지만 경제적 문제로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같은 날 연구원의 '자영업자의 노후 소득 준비 실태와 국민연금 가입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 총 소득이 2000만원 미만인 저소득 자영업자의 31.3%가 노후 준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82.4%는 '경제적 이유가 없어서 국민연금 가입 등 노후 소득 준비를 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새해 첫날 오색떡국떡 드세요" 26일 오전 서울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들이 오색 떡국 떡(1㎏당 7150원)을 선보이고 있다. 오색 떡국 떡은 순 우리 쌀에 인공색소가 아닌 색깔 있는 우리 농산물 백년초, 쑥, 호박을 첨가해 색을 낸 제품이다. /뉴시스

이통3사 영업정지 되레 득?

마케팅비용 감소로 내년 1분기 수익 증가 전망

보조금 과다 지급으로 과징금,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수익이 되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쟁 완화로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26일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과징금 규모가 크지 않을 뿐더러 이번 영업정지로 내년 1분기 마케팅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이다. 3사 합산 마케팅 비용은 기존 추정치보다 약 10% 정도 감소해 1분기 영업이익도 늘어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새 정부의 통신업 규제책이 내년 상반기 중에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시행은 내년 4분기나 2014년으로 예상하고 있어 주가는 당분간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투자증권 역시 "2004년 6월 이통 3사에 영업정지가 부과되면서 영업정지 직전인 2분기 25.0% 늘어난 마케팅 비용은 3분기 26.5%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단말기 보조금이 1% 감소하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내년 주당순이익(EPS)은 각각 2.4%, 1.2%, 4.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성훈기자

거품꺼진 대선테마주…평균 53% 하락

써니전자 고점서 88% 내려

정치테마주 주가가 최고가 대비 평균 53% 하락했다. 대통령선거가 끝나면서 테마주의 거품이 일시에 빠진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부터 이달 21일까지 테마주로 분류된 150개 종목의 주가를 분석한 결과 21일 현재 주가가 최고가 대비 평균 52.7%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최고가 시점에 투자해 현재까지 보유했을 때 투자금의 손실을 따진 평가손실률이 가장 큰 종목은 써니전자였다. 안철수 테마주였던 써니전자는 평가손실률이 88.0%에 달했다. 최고가에 투자해 현재까지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을 때 투자 원금의 90%가량을 잃었다는 의미다.

평가손실률 2위는 문재인 테마주인 바른손으로 87.1%였으며 일경산업개발(85.6%), 미래산업(84.2%), 우리들생명과학(84.2%)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테마주는 큰 변동성 때문에 주가 횡보기와 하락기뿐 아니라 상승기에도 손실이 컸다.

우리들생명과학의 손실 발생 상위 500계좌 주가 흐름별 손실 규모를 분석한 결과, 주가 상승 시 하루 평균 총 손실액은 1억5800만원으로 주가 횡보기 2100만원보다 컸다. /김지성기자 lazyhand@

봄 기다리는 스마트폰 영화제 KT는 스마트폰 단편영화 공모전인 '제3회 올레 국제스마트폰 영화제'가 내년 4월 17일 개막한다고 밝혔다. 집행위원장인 이준익 감독이 제3회 올레 국제스마트폰영화제 드라마 영상을 촬영하고 있다. /KT 제공

한국 복지지출 OECD 꼴찌…증가율 최고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보건사회연구원의 '2012 OECD 공표로 본 우리 사회복지 지출 특성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2009년 기준 9.4%로 30개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8.2%)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하지만 복지 지출 증가 속도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빨랐다. 1980년 이후 20년간 증가율은 연평균 16.6%로 OECD 평균(2.5%)의 3.2배에 달했다. /박상훈기자 sal@

체크카드 1억장 첫 돌파

소득공제율 30% '신용카드 2배'…불황에 불티

#신용카드 2장과 체크카드 1장을 갖고 있는 직장인 김모(41)씨는 지난 6월부터 교통카드 대용으로 사용하는 1장의 신용카드 외에 대부분의 카드 결제는 체크카드를 쓰고 있다. 김씨는 "은행 잔고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어서 결제를 할 때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된다. 씀씀이를 줄이는 데에는 체크카드가 훨씬 유리하다"고 말했다.

경기불황으로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만 쓸 수 있는 체크카드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처음으로 1억 장을 넘어섰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높다는 점도 인기몰이의 이유다.

2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체크카드 발급 건수는 1억20만 장으로 지난해 말까지 8975만 장이 발급된 것과 비교하면 1045만 장(11.6%)이 증가했다.

이에 반해 신용카드의 지난달까지 발급 건수는 1억1600만 장으로 지난해 말(1억2214만 장)에 비해 소폭(5.0%) 감소했다.

현재 발급된 신용카드 중에는 휴면카드 자동 해지로 그 수가 감소할 전망이어서 체크카드 발급 수가 신용카드의 발급 수를 따라잡는 건 시간 문제라는 관련 업계의 예상이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공제율을 20%에서 15%로 줄이고 직불(체크)카드는 현행 30%를 유지키로 하면서 체크카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경기불황 등으로 인해 현명한 소비를 하려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체크카드를 많이 찾고 있다"며 "이러한 고객의 트렌드에 맞춰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체크카드 상품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산기자 lazyhand@metroseoul.co.kr

현대차 '더 브릴리언트 카운트다운'

31일 강남역 엠스테이지서 새해맞이 감동 이벤트 열어

현대자동차는 올 한 해 동안 진행한 '브릴리언트 캠페인'의 일환으로 감동과 사랑을 전하는 새해 맞이 캠페인 '더 브릴리언트 카운트다운 2013'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오는 31일 서울시 강남역 엠스테이지에서 개최되는 '더 브릴리언트 카운트다운 2013'은 인기가수 공연 및 불꽃놀이 등 다양한 볼거리는 물론 발달장애 피아니스트에게 꿈의 무대를 선물하는 감동적인 이벤트를 선보일 계획이다.

김민수군은 발달장애 1급에도 불구하고 악보 없이 청음만으로 완벽한 퍼포먼스를 선보일 수 있는 피아니스트다. 현대자동차는 김군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 온라인 이벤트 사이트(countdown.hyundai.com)에서 시민들의 응원 메시지를 모집하고 있다. 3만 건 이상의 메시지가 모이면 행사장 특별무대에서 김군의 피아노 연주회를 열어줄 계획이다. 사이트에 응원의 메시지를 작성한 고객들에게 디지털 카메라,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을 증정할 예정이다. /김재산기자

나눔으로 더불어사는 건설산업 - 미래 밝혀주는 부영그룹 '교육시설 기증사업'

지방 기숙사·14개국 초교 600곳 '선물'

교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 국내 최대 민간 임대주택 종견 건설사 부영그룹이 사회공헌활동 중 유난히 교육 지원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다. 부영은 설립 초기부터 교육 시설이 필요한 전국의 학교에 기숙사, 도서관, 체육관 등을 지어주는 기증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11일 부영은 부산 영도구 부산남고와 전북 익산 이리여고에 기숙사 '우정학사'를 각각 신축해 기증했다고 밝혔다. 부산남고 기숙사는 전체 면적 1340㎡, 지상 4층 규모로 4인용 기숙사 28실과 독서실 등을 비롯해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리여고 기숙사는 내년 지상 3층에 28실 규모로 건립된다. 이렇게 부영이 지금까지 전국에 건립·기증한 고등학교 기숙사, 마을회관 등 교육 사회복지시설은 130여 곳에 이른다.

부영은 최근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 14개국에 초등학교 600여 곳을 지어주는 등 기부활동 영역을 국외로 넓히고 있다. 이 밖에도 동남아를 비롯, 15개국에 우리나라 졸업식 노래가 입력된 디지털 피아노 5만5000대를 기증하는 등 우리나라의 문화를 알리고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김재산기자

부영그룹은 동남아를 비롯한 15개국에 우리나라 졸업식 노래가 입력된 디지털피아노 약 5만5000대 기증, 교육용 칠판 약 51만4000개 설치 비용을 지원했고, 캄보디아 및 라오스에 초등학교 600개교의 설립 기금을 기증했다.

올레마켓 게임이벤트

Merry Christmas

올레마켓 최신 무료게임!

올레마켓과 함께하는 따뜻한 크리스마스

ALL FREE

12월 4주차

최신,추천게임과 함께하는

올레마켓 경품파티

2012년 12월 21일 ~ 2013년 01월 03일

※다운로드만 받아도 이벤트에 참여 됩니다

FLOWLINE ㈜비트망고

해피머니

온라인 상품권 1만원
200개

코스믹 범프 ㈜오코카

스타벅스

그린티 프라푸치노
327개

다빈치파이어 ㈜브리디아스마트

틴플러스

모바일 상품권 1만원
200개

거상 RPG SK네트웍스서비스

한국문화진흥

온라인문화상품권 1만원
200개

퀸즈애로우 ㈜큐빅스튜디오

CGV

3D 영화 관람권
153개

몬스터판타지 VIVAGAME

도미노피자

치즈케이크 샌드피자와 콜라1.25L
76개

평창 응원하고 리프트권 받고

휘닉스파크 메트로신문 휘팍에서 2018 준비하라

휘닉스파크가 메트로신문과 함께 휘팍에서 2018 영광의 순간을 준비하라 이벤트를 내년 2월 25일까지 실시한다.

메트로신문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에 2012 평창 동계올림픽 응원 메시지와 설원에서 찍은 커플사진을 올린 고객 중 추첨을 통해 휘닉스파크 리프트권(1인 2매)을 증정한다. 당첨자는 응모기간 중 수시로 발표하며 총 30명을 선발한다. 이번주에는 두 커플의 예쁜 사연과 올림픽 응원 메시지가 당선됐다.

◆당첨사연1

"얼마 전 휘팍에서 커플보딩을 하며 멋진 한 컷을 담아왔어요. 좋은 시설과 설질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올 겨울은 휘팍에서 우리들만의 추억을 많이 만들려고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2018년에도 휘팍에 둘이 꼭 가보겠습니다. 휘팍 파이팅!" (ID:당민건달)

◆당첨사연2

"1등인 올림픽 유치를 위해 노력한 면을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정도로 성공한 동계올림픽이 되길 기원합니다!" (ID:규율윤)

스키어·보더의 천국 '휘팍'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평창에 위치한 휘닉스파크는 스키·보드 등 동계스포츠를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다. 총 23면의 슬로프 중 12면의 FIS 공인 슬로프를 비롯해 광활한 스키 베이스를 갖추고 있으며, 스키어와 보더를 위한 하프파이프, 난이도별 점프대와 레일 등이 설치된 익스트림 파크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 렌탈용 보드 장비를 버튼 외 최신 데크로 교체하고, 지방 무료 셔틀버스를 구미·청주·대전·대구·부산 등으로 확대 운영해 더욱 편하게 스키와 보드를 즐길 수 있다. 문의 1588-2828

단감 챙겨먹고 숙취없는 연말

비타민C, 알코올 분해 / 타닌·펙틴은 흡수 방해

술자리 마라톤을 달리는 통에 숙취로 고생하는 이들이 많은 연말이다.

쓰린 속을 달래줄 먹거리를 찾게 되는 요즘 달달한 단감만 한 과일이 없다.

단감은 술 먹은 다음날 속을 진정시켜주고 알코올을 체외로 빨리 배출시켜 술 냄새까지 사라지게 하는 등 숙취 해소에 으뜸이다.

단감 속에 든 풍부한 비타민 C가 숙취를 덜 느끼게 하는 비결이다. 술을 마시면 우리 몸속에 들어온 알코올 성분은 다 분해되지 못하고 아세트알데히드 같은 독성 성분들을 만들어내는데 비타민 C가 바로 이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하는 역할을 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낮추게 된다. 단감에 들어있는 비타민 C는 사과의 17.5배, 귤의 2배에 달한다. 단감 속 비타민 C로 숙취의 뿌리부터 잡는 셈이다.

또한 단감의 타닌과 펙틴 성분이 알코올이 장으로 흡수되지 못하게 방해하고 지연시키며 기다리어게 효소는 알코올의 산화를 돕는다. 덕분에 술을 마신 뒤 단감을 먹으면 이런 속을 달래는 데 도움이 된다.

단감은 갑갑한 뱃속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데도 한몫한다. '단감을 먹으면 변비에 걸린다'는 속설과 달리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의 연동운동을 도와 변비를 예방, 꽉 막힌 장을 풀어준다.

그뿐만 아니라 단감의 비타민 A는 시력 회복에 도움이 돼 한 살 더 나이 들어 침침해진 눈까지 선명하게 밝혀준다. 항산화 작용과 항암효과가 뛰어난 베타카로틴도 많이 들어있어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준다. 감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 C 덕분에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에 기승을 부리는 감기 예방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전효순기자

성탄 케이크 특수? 빵집들 운 사연

케이크 대목인 크리스마스에 누가 장사를 제일 잘했을까. 요약하자면 빵집들은 울고, 대형마트와 편의점은 웃었다.

케이크를 살 수 있는 유통 경로가 베이커리를 벗어나 대형마트와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으로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베이커리보다 싸고 저렴한 케이크를 파는 매장으로 발길을 옮겼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SPC가 운영하는 파리바게뜨의 경우 23~25일 케이크 판매가 지난해보다 13% 줄었다.

반면 23~25일 현대백화점의 케이크 매출은 지난해보다 15.4% 늘었고 같은 기간 홈플러스는 13%, 롯데마트는 15%, 편의점 CU는 10%씩 매출이 증가했다. 불황을 반영하듯 1만원도 안되는 미니 케이크가 인기 상품이었다. /전효순기자

돌아온 빨간국물… 뜨는 고급라면

농심, 올해 키워드 'R&B'로

농심이 올해 국내 라면시장 추세를 압축한 키워드로 'R&B'를 꼽았다고 26일 밝혔다. 'R'는 '빨간(Red) 국물 라면'을, 'B'는 고급형 제품을 가리키는 '블랙라벨(Black Label)'에서 따왔다.

지난해 돌풍을 일으킨 하얀 국물 라면의 기세가 꺾이면서 라면시장의 전통적인 강자로 자리매김해온 빨간 국물 라면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갔다. 꼬꼬면, 나가사끼짬뽕, 기스면 등의 점유율이 지난달에는 1.7%까지 떨어졌다.

반면 신라면과 안성탕면, 너구리, 삼양라면 등 빨간 국물 라면은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며 4강 구도를 지켰다. 진짜진짜 돈라면, 남자라면, 앵그리 RtA 등 매운맛을 강조한 빨간 국물 라면 신제품도 여럿 등장했다.

라면 또한 고급화 시대를 맞았다. 지난 10월 나트륨을 줄인 농심 신라면블랙이 재출시돼 한 달 만에 600만 개가 팔렸고 풀무원의 꽃게짬뽕, 삼양식품의 호면당 라면 등 일반 라면보다 비싸지만 건강과 맛을 고려한 제품들이 연이어 나왔다.

프리미엄 라면은 내년에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농심 측은 "웰빙 재료를 쓴 라면, 칼국수, 새로운 용기면 등을 둘러싼 경쟁으로 2013년을 지배할 라면시장 키워드는 '블루오션'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효순기자 hsjeon@metroseoul.co.kr

'63해돋이' 그 감동 다시!

한화호텔&리조트가 다양한 신년 해돋이 이벤트를 진행한다.

63빌딩은 따뜻한 실내에서 해돋이를 감상하고 떡국을 먹는 '63해돋이 패키지'를 선보였다. 패키지 이용 시 63빌딩의 모든 관람영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가격은 4만9000원(정가 대비 26% 할인). 해돋이 패키지는 온라인몰(www.e63.co.kr)에서만 판매한다.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www.aquaplanet.co.kr/yeosu)는 '박물관이 살아있다 뮤지엄'과 '아쿠아리움'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2만원 특별 할인권을 새해 첫날 단 하루만 선보인다.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판매하여 정상가보다 43% 저렴하다.

한화 아쿠아플라넷 제주도 2013년 1월 1일 오전 6시부터 9시30분까지 이용할 수 있는 해돋이 패키지를 1만9900원(정가 대비 56% 할인)에 내놨다. 아쿠아리움 관람권과 떡국이 포함돼 있으며 31일까지 홈페이지(www.aquaplanet.co.kr/jeju)에서 구입할 수 있다. /박지원기자

MarcusCole
CALIFORNIA
http://blog.naver.com/ejade01
엘라호야시크릿 & 마커스콜 공식블로그
OPEN EVENT
블로그이벤트 단축URL
http://2url.kr/kF2
마커스콜 온라인 : GSSHOP, Hmall, LOTTEimall, LOTTE.com, CJmall, Naver지식쇼핑, 11번가

할 일 많은 朴 '대박'

정치의 해 2012 뜨고 진 정치인들

흑룡의 해 2012 임진년 한 해가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다. 1992년 이후 20년 만에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선거가 함께 치러졌던 올해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고,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전면에 나서며 국제 정세의 급변을 예고하고 있다.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위기 때마다 빛난 '선거의 여왕'

위기 속에서도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의 연이은 승리로 '위기 극복의 구원투수' '선거의 여왕' 등 찬사 어린 별칭을 얻었다.

지난해 말 격랑에 흔들리던 옛 한나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당의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이른바 '박근혜 대세론'을 바탕으로 차기 대한민국호를 이끌 수장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안정과 변화를 적절히 구사해 유권자들에게 어필한 점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원장 시절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으로 당명과 정강·정책을 바꾸고, 외부 인사의 깜짝 발탁을 통해 쇄신 의지를 보이면서 민심을 공략했던 전략도 들어맞았다.

대선 국면에서 인혁당 사건, 5·16 등 역사 인식과 과거사 문제에 대한 대응과 잦은 말실수 등으로 질타를 받는 등 부침이 심했던 그는 원칙과 신뢰를 내세워 결국 승리했다. 공교롭게도 51.6%의 대선 득표율이 5·16과 겹치며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오르기도 했다.

■ 안철수 전 대통령 후보

쇄신 아이콘 '안철수 현상'으로

시쳇말로 '이번 대선은 안철수의 대선'이라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안철수 전 무소속 대통령 후보는 정치인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름값만 놓고 보자면 가장 성공적인 정치 지망생, 정치 신인에 이름을 올렸다는 평가다.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이어 올해 4·11 총선에서 고조됐던 '안철수 현상'의 중심이었던 그는 지지자들을 오랫동안 애태우다 직접 대선판에 뛰어들어 판세를 좌지우지했다.

전무한 정당 기반과 빈약한 조직력에도 불구하고 후보 사퇴 직전까지 양강 후보와 지지율 경쟁을 벌였다는 사실 자체가 대한민국 정치사에 강한 인상을 남겼다.

앞으로의 정계 개편에서도 기성 정치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안철수 현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그의 대권 도전은 형식적으로 기성 정치와의 싸움에서 패배한 것이지만 기성정치를 변화시킨 단초의 역할을 할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 '박의 경제 멘토' 김종인

보수 여당에 '경제민주화' 이식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조력자, '멘토'로 2012년 집중 조명받은 인물로 꼽힌다.

'경제민주화의 전도사'로 과거 새천년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했던 김종인의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발탁은 연초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최대 이슈가 됐다.

이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캠프에 합류하면서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을 맡아 영향력을 이어갔다.

경제민주화를 놓고 이한구 원내대표와의 갈등, 대선 국면에서의 박 당선인과의 이견 충돌 등 잡음도 없지 않았지만 대선 이후 인수위원장 자리를 놓고 후보군으로 거론될 만큼 위상을 높였다.

어떤 역할을 하든 내년 글로벌 경제위기의 심화 국면에서 차기 정부의 초기 경제정책의 직간접적인 열쇠를 쥐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자칫 경제민주화의 퇴조나 기득권 세력의 조직적인 반발이 이어질 경우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 '박근혜의 남자' 김무성

백의종군 택한 '승리의 파랑새'

2007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의 좌장이었다가 이후 세종시 문제를 둘러싸고 격한 대립을 했던 김무성 전 선대위 총괄본부장.

공천을 둘러싸고 요란스러웠던 총선 당시 불출마 선언과 함께 '백의종군'의 상징이 된 그는 박 당선인과 소원했던 관계를 회복하고 총선 당시 흔들리던 부산 민심을 다잡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냈다.

당시 야당 바람이 거세게 불던 부산 지역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이 사상에서 당선됐을 뿐 야권은 여타의 경합 지역에서 모두 고배를 마셨다.

김 전 본부장은 총선 직후 돌연 유럽으로 출국했다가 대선을 앞두고 '보수 대연합'을 외치며 귀국했다. 새누리당이 좌클릭한 상황에서 김 전 본부장의 결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마다 박 당선인의 숨통을 틔워준 김 전 본부장은 이번 대선에서도 톡톡히 역할을 한 뒤 메모만 남기고 홀연히 떠나 화제가 됐다.

■ '올직구' 김부겸·이정현

지고도 칭찬받은 '맨땅에 헤딩'

4·11 총선 당시 적지에서 산화한 두 명의 여야 정치인에 대한 뒷말도 무성했다. 김부겸 민주통합당 전 최고위원과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 이야기다.

경북 상주 출신인 김 전 최고위원은 민주당 인사로 새누리당의 텃밭인 대구 수성갑에 출마했으며 전남 곡성 출신인 이 위원은 '민주당의 철옹성' 광주 서구을에 출마했다.

물론 둘 다 쓰디쓴 고배를 마셨다. 하지만 두 사람은 적지에서 각각 45.5%, 39.7%의 적지 않은 득표율로 해당 지역구 당선자들과 치열한 접전을 펼쳐 주목을 받았다.

이들은 대선전에서도 각각 문재인 전 후보 공동선대위원장, 박근혜 당선인 공보단장을 맡았다.

김 전 최고위원은 대선 패배 후 민주당의 변화를 앞두고 비상대책위원장 후보군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이 위원 역시 차기 정권에서 [illegible] 호남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한 게 없는 李 '쪽박'

단순한 권력의 변화를 넘어 시대정신을 공유하는 유권자들의 정치 열망이 그 어느 해보다 뜨겁게 분출됐던 한 해였다. 새 시대를 앞두고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2012년 국민적 관심 속에 울고 웃었던 정치인들을 짚어봤다.

/배동호 최유리기자 e-sven@metroseoul.co.kr

■ 이명박 대통령

"경제는 살리겠지" 기대했는데…

퇴임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나섰지만 얼기 5년 간 이뤄놓은 성적표는 초라하다.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 평균 경제성장률은 3.0%(2012년 한국은행 경제성장률 전망치 2.4% 반영)에 그쳤다.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저소득층은 팍팍한 고살기 급급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의 엥겔계수가 지난해 20.7%로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위기관리와 대외무역은 합격점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와 올해 연속 무역 규모 1조 달러대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세계 무역 8강 진입도 유력시되고 있다.

정치 분야에서도 씁쓸한 성적만 남겼다. 측근 중에서는 형 이상득 전 의원을 비롯, 멘토였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줄줄이 구속되면서 불명예를 안았다. 내곡동 사저 부지와 관련해서는 사상 초유로 현직 대통령 아들(시형)이 검찰 조사를 받는 기록을 남겼다.

■ 문재인 전 대통령 후보

'친구' 당선 정확히 10년 후 쓴맛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 비서관이 대통령이 되는 꿈을 꿨었으나 좌절됐다.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는 올해 정치인으로서 비상한 상승 곡선을 거듭했다. 4·11 총선에서 부산에 출마해 55%라는 높은 득표율로 당선됐다. 내용적으로는 실패였다.

문 전 후보의 성적은 PK(부산·경남) 지역 5석 이상이라는 기대를 저버렸다. 그래도 문 전 후보 개인은 승승장구했다.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13연승을 하며 본선 진출권을 따냈다.

이어 안철수 전 무소속 대통령 후보의 양보 등에 힘입어 야권 단일후보로 본선에 진출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세론'을 꺾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선거 도중 물러난 이해찬 대표의 권한을 받아 대표 대행을 맡았지만 패장으로서 연내 이 자리도 내줘야 한다. 대권을 꿈꾸던 문 전 후보는 차기 대권 출마는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대선 후 당내에서는 문 전 후보의 의원직 사퇴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구태상징·쇄신대상 전락한 친노

"친노 계파'의 부활이 실패했다.

올해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통합당 참패에 섰던 친노(친노무현)는 번번이 좌절했다. 4·11 총선 당시 대표를 맡았던 한명숙 전 총리는 총선에서 과반 의석 달성에 실패하며 자리를 내놨다. 이해찬 전 대표는 총선에서 세종시에 출마해 당당히 국회로 입성했다. 세종시는 참여정부 시절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지정됐으나 이후 갈등이 거듭된 곳으로 이 전 대표의 승리는 친노에 대한 충청인의 면죄부로 받아들여졌다. 한 전 총리에 이어 대표직에 오르며 승승장구하는 듯했으나 반짝 승리에 그쳤다.

이 전 대표는 대선 도중 안철수 전 무소속 후보를 비롯한 각계의 요구에 임기를 마치지 못해 자리에서 물러났다. "구태정치" "쇄신 대상"이라는 불명예도 얻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노의 최대 상품이던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정권교체를 이루지 못하자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대선 패배 책임론에 휩싸이며 계파 해체 등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 이석기·김재연 '국회의원'

진보정치 위기 부른 '마른풀 신공'

진보진영 내 한 계파에 불과한 '경기동부'가 유명세를 탔다. 문제는 첫 등장부터 부정적 이미지가 커도 너무 컸다는 것이다.

이석기·김재연 의원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로 4·11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당원 투표를 통한 선진적 비례대표 투표 형식에 부정 의혹이 제기됐다. 전자투표에서는 소스 코드 조작 의혹이 제기됐고 현장 투표에서도 투표 용지의 "마른 풀이 살아나" 겹겹이 포개져 나왔다는 의혹 제기가 이어졌다. 당 지도부는 이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비례대표 당선자는 모두 사퇴하자는 중재안을 냈으나 이석기·김재연 의원을 비롯한 경기동부 의원들이 반대했다.

이 과정에서 이석기 의원은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는 발언으로 국가관을 의심받았고, 통합진보당은 '종북당'으로 각인됐다. 국민참여당 계와 진보신당 탈당파 등은 결국 진보정의당을 창당했고 진보진영은 뿔뿔이 갈라지며 대선 국면을 맞았다.

■ 전여옥 전 한나라당 의원

'저주의 부메랑' 맞은 독설의 대가

제18대 대통령선거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로 끝나면서 박 당선인에게 "대통령이 될 수도, 돼서도 안 된다"고 했던 전여옥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에 주목받고 있다.

전 전 의원은 올해 1월 출간한 자서전 'i 전여옥'에서 박 당선인을 평가절하했다. 한때 친박계로도 알려졌던 그는 이후 돌연 친이(친이명박)계로 돌아선다. 전 전 의원은 책에서 대변인으로 겪했던 박 당선인에 대한 실망감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거의 교과서를 암기하고 족집게 과외 공부하는 수준이라면 이 나라 국민이 곤란하지 않은가?" "'베이비 토크'와 다른 점이 없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라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비민주적이다"고 힐난했다.

그러나 시대는 바뀌어 박근혜 대통령 시대가 되었고 전 전 의원은 올해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에서 탈락, 국민생각 정당 소속으로 출마했으나 고배를 마셨다. 국민생각은 올해 총선에서 당선자를 한 명도 내지 못하고 반짝 정당으로 사라졌다.

‘100% 마음’ 더해 완벽한 선물

받아도 줘도 기분좋은 연말연시 기프트 아이템 … 고민 그만!

주거출, 취향, 성격, 나이, 존경…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에 소중한 사람에게 전하는 다양한 마음이 담겼다.

힘찬 고비 고비를 넘으며 2012년을 달려온 지친 마음을 보듬고, 2013년을 즐겁게 시작할 응원의 메시지를 듬뿍 담아 낼 선물을 모았다. 나를 위한 선물을 준비해 작은 사치를 누려도 좋다.

새해 새 기분으로 … 연말 축제에 … 선물 아이템, 꼭 하나로 추천한 기프트 박스를 풀어본다.

/전효순·박지원 기자 hsjeon@metroseoul.co.kr

◆5만원대 이하

①따뜻한데 귀엽기까지! 칼바람도 무섭지 않은 '귀요미' 비니. 3만원대. 르꼬끄 스포르티브.
②파티 분위기 무르익는 때는 와인에서 톡톡 터지는 스파클링 와인이 으뜸. 가격도 착하다. 와인전문지 디캔터가 '가격대비 가장 뛰어난 프랑스 와인 60선'에 꼽은 제품. 5만원대. 레뱅드매일
③피가 나도록 닦는 분노의 칫솔질은 그만. 나이 들수록 중요하게 느껴지는 치아 건강을 위한 음파 칫솔. 5만5200원. 필립스 소닉케어
④이보다 더 화려할 순 없다. 반짝이는 큐빅 장식 블라워 귀걸이에 여심이 사르르 녹는다. 5만9000원. 레코앤러빅

◆5만~10만원

①나를 위한 여행을 떠날 때 단짝 친구가 돼준다. '힐링' 효과 가득한 드리블 미니 캔들. 5만원. 조말론 런던
②앙증맞은 에이톰을 닮은 곰돌이 디자인의 유아 식기. 조카에게 건네는 첫 번째 선물로 으뜸. 31일까지 9만6000원. 코크루저
③"난방비 아끼세요" 실내에서도 신을 수 있는 방한용 털 슬리퍼. 사무실에서 북극곰 신세 된 직장인들에게 제격. 4만8100원. 크록스.

◆10만원대

①코펜하겐의 바다를 조용히 응시하고 있는 인어공주. 그리고 인어공주를 감싸고 있는 투루 빛깔이 아름답다. 2013년 한정판 제품. 13만원. 로얄코펜하겐.
②연말 시상식이라도 가나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듯 옷을 갈아입은 피테라 에센스. 스와로브스키 엘리먼츠 크리스탈 특별에디션. 16만원대. SK2
③심플한 북유럽식 디자인이 시선을 잡는 휴대용 유아의자. 식탁 의자에 장착할 수 있고 5세까지 사용 가능한 실용성까지 챙겼다. 14만원(액세서리 제외). 스토케 코리아
④올햇 슈즈를 고집하는 멋쟁이 당신. 겨울엔 폭신폭신한 양털 모카신이 있다. 드라이빙 슈즈로도 인기. 16만9000원. 어그

◆20만원대 이상

①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소녀시대와 콜라보레이션한 한정판 시계. 21만원. 카시오 베이비-G
②집이 카페로 변신하는 놀라운 변화. 물 조절을 쉽게 할 수 있는 스마트 기능 탑재. 스마트폰으로 커피 캡슐을 주문할 수 있다. 25만원대. 네스카페 돌체 구스토.
③시들시들한 TV는 잠시 꺼둬도 좋다. 착용하는 순간 웅장한 음악 세계로 풍덩. 스마트폰과 홈시어터, 스튜디오에서 두루 사용. 29만8000~49만8000원. 야마하뮤직코리아
④국민 여동생 수지 따라잡기? 살짝 발랄한 빨간색 다운 조끼가 핫 아이템. 25만9000원. 빈폴 아웃도어

star bag

첫 솔로 발매 기념공연

JYJ 김재중이 다음달 26~27일 일산 킨텍스에서 첫 솔로 앨범 발매를 기념하는 공연을 개최한다.

'유어, 마이 앤드 미'란 이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미니 콘서트와 팬미팅을 결합한 색다른 이벤트다. 소속사는 "공연 첫날인 26일은 김재중의 생일이라 팬들에게 감사하는 뜻에서 자신의 삶에 관한 이야기들을 무대에 풀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약분쟁 상벌위 재상정

배우 강지환이 소속사와 전속 계약 문제로 대립 중인 사건이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상벌윤리위원회에 재상정된다.

앞서 강지환에게 3억원대의 손해배상 및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소송을 낸 소속사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는 26일 "법적 조치 외에도 연예계 산업 근간을 흔드는 '강지환 악행'에 (책임을) 강력히 물을 것"이라며 재상정함을 밝혔다.

교수 강의평가 1위 차지

김인우가 서울예술종합학교 2012 전 학부 전공교수 학생 강의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그는 앞서 2010년부터 실용예술학부 전임교수로 임용돼 학생들을 가르쳐 왔으며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열성적인 강의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연기예술학부 겸임교수로 재직 중인 류승룡이 3위, 기악과 전임교수 기타리스트 김세황이 7위에 올랐다.

'파우스트'로 배우 복귀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배우로 복귀한다.

극단 광대무변은 28일 서울 청담동 유시어터에서 '파우스트-괴테와 구노의 만남'을 공연한다. 괴테의 동명 희곡에 곡을 붙여 만든 샤를 구노의 오페라 '파우스트'를 토대로 한 낭독 공연으로 유 전 장관이 연출과 주인공 파우스트를 맡았다.

라이브 '퍼펙트' 무대는 '미려쿵'

국내외 신인상 3개 휩쓴 아이돌 그룹 B.A.P

가사 직접쓰고 작은 것도 차별화 다음엔 따뜻한 음악 만들겁니다

올해 추산 60여 팀이 육박하는 가수가 가요계에 첫발을 들였지만, 그룹 B.A.P(비에이피)가 보여준 지난 1년의 기록은 '군계일학'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평생에 한 번뿐인 신인상을 국내외 통산 세 개나 휩쓸고도 아직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그들을 만나 올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5장 활발 발매 - "관심 놀라워"

데뷔 당시 179cm였던 막내 젤로의 키는 184cm가 됐다. 자란 것은 막내의 키뿐만이 아니다. 데뷔 싱글 '워리어'를 시작으로 싱글앨범 3장과 미니 리패키지 등 총 다섯 장의 앨범을 발매하면서 차곡차곡 경력을 쌓았다. 땀은 배반하지 않는다는 말이 맞는지 엠넷 'MAMA' PD 선정 특별상, '골든뮤직어워드' 신인상, 독일 '리마커블 어워즈' 신인상과 올해의 노래상, 유럽 '소리브드 어워즈' 신인상과 최우수 안무상 등 국내외 연말 시상식을 고이말로 싹쓸이 했다.

"제대로 된 해외 프로모션 활동을 한 적도 없는데 세계 각지에서 관심을 주시니까 놀랍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해요. 우선 한국에서의 입지를 탄탄히 다진 뒤에 해외 활동을 시작할 계획입니다."(대현)

"올 한 해는 저희를 알리기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바쁘게 활동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인상도 받고 한 해를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힘찬)

"젊을 때 너무 열심히 하면 나중에 고생한다고요? 어려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지금,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젤로)

#경쟁 보다 도전에 무게

이들이 특별한 이유는 다름 아닌 실력에 있다. 격하기로 소문난 안무에도 흔들림 없이 라이브를 소화하고, 리더 용국이 전곡에 참여해 직접 가사를 쓰니 음악성도 빠지지 않는다. 쇼윈도 위에 예쁘게 진열될 줄만 아는 여느 아이돌 그룹과는 확연히 차별화된 생동감의 비법이다.

"누군가와 경쟁한다는 생각보다 한 발 앞서 새로운 것들을 해보자는 마음이었어요. 스프레이 등 기구를 이용하는 퍼포먼스나 스텀프 인무처럼 강렬한 무대를 선보이면서 'B.A.P는 파워풀하다'는 이미지를 준 것 같아요."(대현)

"아이돌 음악이라는 게 비슷한 장르에 비슷한 코드와 템포를 갖고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저희는 가사도 직접 쓰고 드럼 루프처럼 사소한 것들부터 신경을 많이 써서 차별화된 음악을 하려 노력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대중들에게 '재들이 다음엔 어떤 음악을 들려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고 싶어요."(용국)

#후회와 각오는 무엇?

빛나기만 했을 것 같은 이들의 1년에도 후회는 있었다. 용국이 지난 1년 중 가장 아쉬웠던 순간으로 "너무 과하게 해서 몸이 아플 정도였던 데뷔 무대"를 꼽자 멤버들도 한마디씩 거들고 나섰다.

"지금 그 무대를 보면 온몸에 힘이 '빡' 들어가 있는 게 느껴져요. 어색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저한텐 금지 영상이죠."(힘찬)

"큰 무대에 몇 번 서봤지만, 아직 신인이고 미숙하다 보니 제대로 못 보여드린 것 같아 조금 아쉬워요. 이 경험을 밑거름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죠."(영재)

신인다운 풋풋함이 묻어나는 대답도 잠시, 내년에 열릴 첫 단독 콘서트와 아시아 투어 이야기가 나오자 눈을 반짝이며 계획을 늘어놨다.

"올해는 조금 바쁘게 작업을 해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드렸다면, 내년에는 더 많이 준비해서 시간을 갖고 완성된 앨범을 들려드릴 예정이에요. 사회 비판적인 가사를 많이 썼는데, 다음번엔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음악을 만들어보고 싶어요."(용국)

"빅뱅 선배님들의 콘서트처럼 '한 번 본 사람 꼭 다시 오게 만드는' 그런 공연을 해보고 싶어요.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헤어스타일도 바꾸고 싶고요. 탈색을 너무 많이 했더니 두피 건강이 염려돼서요. 하하하."(힘찬)

/권보람기자 metrogwon@metroseoul.co.kr·디자인/박선영

E channel

뼛속까지 찌질한 진상가족들의 시추에이션 꽁트쇼

단단한 가족

굵고 짧고 세게 치고 빠져라!

매주 토요일밤 11시, E채널 본방사수

tcast

유세윤 이인혜 오광록 김완선 김새롬 한지우 단우

에릭 베넷부터 정엽까지 실력파 뮤지션 '지원사격'

브아걸 제아 솔로 '눈길 가네'

다음달 4일 출시되는 브라운아이드걸스 제아(사진)의 첫 솔로 앨범에 국내외 실력파 뮤지션들이 총출동한다.

소속사 내가네트워크가 26일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한 5곡의 트랙리스트에는 에릭 베넷 정석원 정엽 김이나 등이 작곡·작사자로 이름을 올렸다. 미국 출신의 세계적인 R&B 가수인 베넷은 앨범의 첫 곡인 '데이즈 & 나이츠'에 작곡과 공동 작사를 맡은 것은 물론 피처링으로도 참여해 눈길을 끈다.

정엽과 실력파 래퍼 더블K도 피처링으로 참여해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음악이 담길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소속사 측은 "슈퍼 디바 제아를 만날 수 있는 앨범"이라며 "국내외 정상급 스태프가 모여 만들었기 때문에 소장가치가 뛰어난 웰메이드 앨범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제아는 28일 선공개 곡을 발표한다.

/유순호기자

서태지 '컴백홈'

국내 정착 의사 "효도해야지"

가수 서태지가 오랜 해외 생활을 마치고 국내에 정착할 뜻을 밝혔다.

그는 서태지닷컴에 '김치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직접 글을 올려 "요즘은 가족들과 새 집에서 오순도순 지낼 생각에 기대에 부풀어 있다"고 전했다.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신축 중인 주택에 대한 기대를 드러낸 것이다.

서태지는 "여기저기 떠돌다가 나름 한국에서 정착 [illegible] 실"이라면서 "너무 늦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효도해야지"라고 적었다. 소속사에 따르면 서태지는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으며 귀국 일정이나 활동 계획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았다.

/유순호기자

"사고 쳤고 살도 쪄서 미안"

아이유, 은혁과 사진 스캔들 후 첫 심경고백

'사고 친 국민 여동생' 아이유가 애교 섞인 사과로 복귀를 알렸다.

지난달 10일 슈퍼주니어 은혁과의 사진 스캔들 이후 굳게 입을 다물었던 아이유는 25일 자신의 팬카페 '유애나'에 이와 관련한 심경을 처음 밝혔다. '메리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그는 "잘 지냈나요, 유애나~ 방문 꼭꼭 닫고 있느라 답답했어요. 화이트 크리스마스네요. 물론 나가보지는 않았습니다"라며 이전의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있음을 알렸다.

이어 "프롬유(팬카페에 스타가 직접 작성하는 글) 쓰고 싶어서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도 덕분에 세상에는 할 일 없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댓글놀이 말고도 많이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이유는 "맘고생하느라 살 빠진 우리 유애나 미안. 사고 친 주제에 나는 살까지 쪄서 더 미안"이라며 사진 유출 이후 의혹만 키운 소속사 해명과 달리 '사고를 쳤다'는 솔직하고 직접적인 표현으로 팬들의 마음을 달랬다.

또 그는 "오늘은 크리스마스니까! 여기는 유애나니까! 이때다 싶어 살짝 안부만 묻고 사라집니다. 니곧 방문 열고 나가요. 마루에서 주스나 한 잔씩 하면서 기다리고 계세요들!"이라며 컴백을 예고했다.

아이유는 매달 수차례 팬카페에 글을 남기고, 트위터로 대화하는 등 팬들과 격의 없이 소통해온 스타 중 하나로 꼽혔다. 그러나 은혁과 잠옷 차림으로 얼굴을 맞대고 있는 사진이 유출된 이후로는 모든 통로를 차단해 심경 변화와 활동 방향에 관심을 모았다.

아이유는 은혁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면돌파를 시도한 만큼 적극적으로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29일 고려대 화정체육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SBS '2012 가요대전'에 수지·정겨운과 함께 공동 MC로 나선다. 또 내년 방송될 드라마 출연을 논의 중이다.

/유순호기자 sune@metroseoul.co.kr

입체감·깊이감·황홀감… '3감' 살아있다

film review

■라이프 오브 파이

우리에게 '센스 앤 센서빌리티'와 '브로크백 마운틴' '색, 계' 등으로 익숙한 이안 감독이 3D 영화를 연출했다면 어떤 모습일까?

아마 이 같은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의아해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물을 보고는 고개가 끄덕여졌다. 특유의 장기는 고스란히 살리면서, 영상적으로는 '아바타'의 입체감에 3D 영상을 통해 사고할 수 있는 깊이감과 황홀함까지 두루 갖췄기 때문이다. 도대체 이안 감독은 영화에 무슨 금가루를 뿌린 것일까?

인도에서 동물원을 운영하던 파이(수라즈 샤르마)의 가족들은 작은 사정상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된다. 파이 가족은 동물들과 캐나다행 배에 몸을 싣지만 도중 폭풍우를 만나 난파를 당한다. 구명보트에 남은 건 16세 소년 파이와 다리를 다친 얼룩말, 하이에나, 리처드 파커라는 이름의 호랑이. 호랑이에게 두 동물은 먹히고, 파이는 호랑이와 함께 227일간 태평양에서 생존을 위한 표류를 해야 한다.

얀 마텔의 베스트셀러 소설 '파이 이야기'를 옮긴 이 영화는 앞서 언급했듯 영상의 황홀경을 맛보게 한다. 집채 같은 고래가 보트 위로 솟구치고, 밤바다 속에서는 해파리떼가 아름다운 빛을 발한다. 파이의 어린 시절 회상신에 등장하는 인도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과 인도 전통 춤 등은 마치 그 속에 관객들이 들어가 있는 듯한 환상을 느끼게 한다.

영상적 황홀함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구명보트에 살아남은 생물들 사이에 벌어지는 사투, 파이와 호랑이가 밀고 당기는 힘의 역학 관계와 본능, 이들의 우정 등 미묘한 감정이 섬세하게 설명된다. 특히 후반부에 성인이 된 파이가 자신의 표류기를 다시 이야기하는 대목에서 구명보트에 살아남은 생물의 관계를 인간들의 관계로 탈바꿈시키며 멋진 반전을 선사한다.

이안 감독은 영상뿐만 아니라 이야기에도 마법의 가루를 뿌린 것이다. 전체 관람가. 내년 1월 1일 개봉.

크리스마스 극장가 잡은 '타워'

하루 43만 1위… '레미제라블' 인기도 만만찮아

연말 극장가의 흥행 기상도가 안갯속에 빠졌다.

26일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타워'(사진)는 개봉일인 크리스마스 하루 동안 전국에서 43만1753명을 불러모아 지난 주말 1위를 독주했던 뮤지컬 영화 '레미제라블'(35만5843명)을 한 계단 끌어내리고 일일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다.

그러나 '레미제라블'은 상영 일주일 만에 누적 관객 192만9560명을 기록하며 200만 고지에 바짝 다가섰다. 국내에서 뮤지컬 영화로는 최고의 흥행 기록(450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맘마미아!'를 제칠 수 있을지에 벌써부터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건은 다소 긴 러닝타임(2시간38분)으로 인한 상영 횟수의 열세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

3~4위는 '반창꼬'(20만6175명)와 '가문의 영광 5 – 가문의 귀환'(14만4050명)이 각각 차지했고, 판타지 블록버스터 '호빗: 뜻밖의 여정'은 14만1514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5~9위는 방학철 어린이 관객들을 겨냥한 '주먹왕 랄프' '니모' '신라비행단의 모험' '잘빠지여' '신비한 나무섬의 비밀' '극장판 포켓몬스터' 등 애니메이션들이 자리했다.

/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전국민 영어회화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통문장 학습법의 창시자 코넬리우스의 4단계 기초회화 훈련법

Day 3 What's this?
사물에 대해 말하기(단수)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1
본 지면은 New English 900 Vol.1에서 발췌했습니다.

영어 통문장 익히기

▶ 우리말 먼저 보고 영어로 0.5초 내로 말하기 도전!

이건 뭐예요?
이것이 당신의 노트북인가요?
저건 스마트폰인가요?
그건 일반 핸드폰이에요.
그건 당신의 것인가요?

▶ 이제 두 번 큰 소리로 말하고 외워보세요.

What's this?
Is this your notebook?
Is that a smart phone?
It's a regular phone.
It is yours?

반복 훈련으로 자동 암기하기

▶ 짧은 대화 훈련

문장 속에서 우리말에 해당하는 표현을 찾아 말해보세요.

A Whose briefcase is this? Is it 당신의 것?
B Yes, it's mine. Please close it.

정답 yours

▶ 패턴 훈련

각 단어를 넣어 말해보세요.

1 What's [this / that]? Is it a notebook?

2 Is this your [book / notebook]? It's time to begin the meeting.

TOEIC Reading ▶ ETS TOEIC Reading Prep Book

01 Although the staff has grown, Mr. Lee continues to conduct all client meetings ______.
(A) he (B) him
(C) his (D) himself

02 Renowned violinist Aya Kodura maintained a rigorous practice schedule ______ her national tour.
(A) during (B) among
(C) abroad (D) inside

01. 직원들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씨는 모든 고객 회의를 계속 직접 진행한다.
해설 기꺼이 관심 구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강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재귀대명사인 himself를 쓴다.
어휘 staff 명 (전체) 직원 conduct 동 진행하다, 수행하다 client 명 고객 meeting 명 회의
정답 (D) himself

02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 아야 코두라 씨는 전국 투어 중에도 엄격한 연습 일정을 계속했다.
해설 명사 목적어를 취하는 전치사가 필요한 자리인데, 문맥상 기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during을 쓴다.
어휘 renowned 형 저명한, 유명한 maintain 동 유지하다, 계속하다 rigorous 형 엄격한, 철저한 national tour 전국 투어 abroad 부 국외로 inside 전 ~의 안에, 내부에 부 내부에, 안쪽으로
정답 (A) during

TOEIC Speaking ▶ ETS TOEIC Speaking Prep Book

Part 6 의견 제시하기
의견과 이유 및 근거를 말할 때 쓰는 표현

• 이유 말하기

Because people can share their ideas and have something in common.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나눌 수 있고, 공통점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The first reason is that it costs a lot of money to go abroad.
첫 번째 이유는 외국에 가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 순서대로 열거하기

First (of all), people want to spend quality time with others.
우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For one thing, my family always comes before my job.
우선 한 가지 이유는 가족이 항상 일보다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Second, thanks to the internet, children can learn everything they want to know.
둘째로, 인터넷 덕분에 아이들은 알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김진우마저 WBC 불참

팔꿈치 통증 호소…배영수·윤희상 등 대체선수 거론

팔꿈치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김진우(29·KIA·사진)가 결국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불참한다.

WBC 한국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류중일(49) 감독은 26일 "김진우를 WBC 대표팀 명단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김진우는 올 시즌 24경기에 등판해 10승5패, 방어율 2.90의 준수한 성적을 거뒀지만 시즌 막판부터 오른쪽 팔꿈치 통증을 겪었다.

KIA 구단은 "김진우가 WBC 대표선수로 발탁되기 전부터 팔꿈치가 좋지 않았다"며 "일본 오키나와에서 진행된 마무리캠프에도 참가할 예정이었지만 팔꿈치 문제로 무산됐다"고 밝혔다.

류 감독은 WBC 대표팀 코치진과 한국야구위원회(KBO) 기술위원회 등과 협의해 이번주 중 WBC에 참가할 최종 선수 명단을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 12월 클리블랜드에서 신시내티로 이적한 메이저리거 추신수도 출전이 어려워 보인다.

현재 김진우를 대체할 오른손 투수로는 배영수(삼성)·윤희상(SK)이 거론되고 있다. 추신수를 대신할 선수로는 손아섭(롯데)이 물망에 올라 있다.

/유선준기자 rrjun@metroseoul.co.kr

앤드루 존스 아내 폭력혐의 체포

메이저리그 거포 외야수 앤드루 존스(35·사진)가 가정폭력 혐의로 체포됐다.

미국 언론은 26일 존스가 크리스마스 새벽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인근 덜루스에 있는 자택에서 아내와 다툼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고 전했다. 그는 약 7시간 뒤 보석금 2400달러(약 258만원)를 내고 풀려났다.

메이저리그에서 17시즌을 뛰며 타율 0.254, 434홈런, 1289타점을 기록한 그는 2007년 이후 하향세를 보이며 최근 일본프로야구 라쿠텐과 1년간 총액 350만달러(약 38억원)에 입단 계약을 맺었다.

/김민준기자

윤요섭 29일 웨딩마치

LG 포수 윤요섭(30·사진 오른쪽)이 29일 오지연(24)씨와 결혼한다.

윤요섭은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는 만큼 무척 기쁘고 책임감도 많이 느낀다"며 "내년에는 팬들에게 그라운드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빨간 마후라 맨 구자철 "전투기 조종 정말 짜릿"

구자철(23·아우크스부르크·사진)이 공군으로 잠깐 변신했다.

공군 홍보대사인 그는 26일 대구 11전투비행단에서 공군 주력 전투기인 F-15K를 체험 탑승한 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전투기에서 바깥을 바라보니 기분이 짜릿했다. 다음엔 직접 어떻게도 한번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구자철은 공군 정비사 출신인 아버지 때문에 어린 시절 10년간 공군 관사에서 보낸 인연으로 공군 홍보대사가 됐다.

리그 초반 발목 인대 부상을 극복하고 최근 2골을 터뜨리며 해결사 본능을 과시한 그는 "이번 시즌에 개인적으로 10골을 넣고 싶다"며 "내년 3월까지 몸 상태를 100%로 끌어올리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준기자

남현희 내년 5월 출산

'땅콩 검객' 남현희(31·사진)가 아이 엄마가 된다.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남현희는 임신 4개월로 내년 5월께 출산할 예정이다. 그는 아이를 출산한 뒤에도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등 선수 생활을 이어갈 계획이다.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주)
[2011-서울강남-0163]
1566-7979
樂金快金
즐거운 금융 빠른 금융
樂金快金(러진콰이진)은 러시앤캐시가 진출한 중국 현지의 브랜드입니다
중국 금융의 대가, 무자日
즐거운 금융 빠른 금융
중국인이 필요했던 선진금융이로다
중국 계림 현지촬영
러시앤캐시 중국에서 어떻게 부를까요?
CLFA 한국대부금융협회